

## 현자의 선택(4): 에서와 야곱

신학박사 조 덕운

성경 말씀: [창세기 25:21-23, 흠정역]

이삭이 자기 아내가 수태하지 못하므로 그녀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매 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수태하였더라. 아이들이 그녀의 태 속에서 함께 싸우므로 그녀가 이르되, 그렇다면 왜 나는 이러할까? 하고 가서 주께 여쭙고있더니, 주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네 태 속에 있노라. 두 종류의 백성이 네 배 속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시니라.

### 1. 왜 야곱을 택하셨는가?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 한 분이 나에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서를 버리고 하필 속임과 거짓이 심한 야곱을 택하시고 축복하셨을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매우 단순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부적인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또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할 의무가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므로 자신의 결정과 조치를 정당화 해야 할 의무가 없으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풀어서 설명하였습니다.

[로마서 9:10-13] *이뿐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는데,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으되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때에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것은 기록된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는 것이 그 설명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 설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9:20-21] *아니라, 오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존귀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태어난 두 쌍둥이 아들들 중에서 에서 대신으로 비록 속임수가 능하고 정직하지 못한 동생 야곱을 택하시고 축복하시며, 그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대를 이어가시도록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마치 토기장이가 한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귀한 음식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고, 다른 한 그릇은 똥오줌을 담는 요강으로 만들 권한이 있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설명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결정을 누구에게도 이해시키고 정당화 시키실 의무가 없는 전지전능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에서보다 야곱을 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관하여 탐구하고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떠오른 생각은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인생을 미리 보시고 그 예지를 바탕으로 결정하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우리는 창세기의 성경 기록을 통하여 비교적

상세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청년 시절보다 그 이후에 이 두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유의하여 성경 기록을 살펴 보면 이 두사람 사이에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두 아들들의 미래를 미리 보시고, 그들의 가슴 속에 있는 목적과 동기들을 보셨으며, 그들을 통하여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가 어떻게 발전되고 성장할 것인가 보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지를 바탕으로 형인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섬길 것이며,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되고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발전할 것을 미리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 2. 에서와 야곱의 차이

이제 우리는 에서의 일생과 야곱의 일생을 요약함으로써 그 두 사람의 일생에 어떤 점들이 하나님의 선택에 핵심적인 요소이었는지 알아 보기로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기 위하여 선택하실 때에는 그의 용모나 재산이나 출신보다도 가슴 속의 동기와 추구하는 바를 보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준을 대언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을 선택할 때에 가르쳐 주셨는데, 사실은 이 기준이 오늘날도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사무엘상 16:7]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일생을 통하여 그들의 가슴 속에 어떤 목적과 희망이 있었으며,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진실된 마음, 정직하고 겸손한 동기,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구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 가. 에서의 일생

에서는 부모와 조상을 위하는 효자이었고, 장자로서 축복받기 간절히 원하였으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성공적인 목축 사업가가 되었고, 부인들도 여럿 두어서 후손들도 많이 보았고, 상당한 수의 싸울수 있는 사병(私兵) 조직도 거느려서 다른 사람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세력가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나 야셀서에는 에서가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과 사귀는 모습을 나누는 모습이나 기도했던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에서의 친족을 섬기는 효자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자신을 키우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에서의 일생은 불만과 미움과 불평으로 가득한 불행한 일생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에서를 음행하는 자, 속된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16]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매우 쉽게 장자권을 판 행위는 하나님께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즉 아들 이삭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축복을 받으리라는 위대한 약속이 자신이 가진 장자권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임을 온전히 무시한 믿음 없는 행위, 하나님과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신앙을 모두 무시한 무신자의 행위이었던 것이었으며, 오히려 장자권을 차지한 야곱을 죽이겠다고 걱정하였으며, 그러한

잘못된 결심을 공공연히 표현함으로써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사악한 감정을 도입시켜 평화를 깨뜨리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이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는 일생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권 손실 사건 이전에 잘못된 결혼을 통하여 부모와 하나님께 죄스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 40 세에 이방 헛 족속의 여자 두명을 부모의 승락이 없이 취하였는데, [야셀서에 의하면] 이삭의 처음 며느리 두사람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관습을 이삭의 집 안에서 공공연하게 실행함으로써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 거리가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집안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영적 음행을 가져온 것입니다.

*[창세기 26:34-35] 에서가 사십 세에 헛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헛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는데,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마음의 근심거리가 되었더라.*

야곱이 형 에서가 가하는 죽임의 위협을 떠나 하란 땅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결혼하고 여러 자식을 보고 수 많은 동물들의 떼들을 소유한 상당한 재력가로서 이제 가족을 보려고 귀환하는데, 에서는 아직도 83 년 전의<sup>1</sup> 앙심을 품고 야곱을 죽이려고 400 명의 무장 세력을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야곱의 겸손한 자세와 선물 공세가 아니었다면 야곱과 그의 가족은 에서에게 모두 해악을 당했을 것입니다. 에서는 끝까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겸손하게 만드심으로써 에서가 형제를 해하는 죄악을 예방하셨습니다.

*[창세기 32:6-7]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르렀는데 그 역시 주인을 만나려고 사백 명의 남자와 함께 오고 있나이다, 하매 이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고민이 되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 떼와 소 떼와 낙타들을 두 떼로 나누고*

이러한 에서의 일생을 미리 보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의 성취를 에서의 혈통을 통하여 하실 것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아마도 여러분이 그러한 결정권자이었다면 그러한 결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나. 야곱의 일생

야곱은 결코 처음부터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고 그에게서 이스라엘의 12 족장들이 나오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 주시므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확실히 표현하셨고, 그 이름은 오늘날까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지칭하는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들의 나라의 명칭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선택하여 축복하게 한 것이었을까요?

첫째는, 장자권 탈취 사건이 보여주는 것처럼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온 가계에서 장자의 자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이해하고 그 장자의 권리를 갖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허기에 한 형 에서에게 그것을 요구하였고, 에서는 쉽게 한끼의 음식에 그 소중한 권리를 팔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야곱을 도둑이라고 탓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장자권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 기회를 포착하여 취한 그의 노력을 높게 평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왕국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취하는 사람들에

<sup>1</sup> 야셀서에 의하면 장자권 전환은 그들이 15 세에 일어났고, 야곱이 라반을 떠나 부모의 집으로 왔을 때에 야곱과 에서의 98 세, 이삭은 158 세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음.

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소중함을 알게 된 사람들이 비록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이를 취하더라도 그것을 탓하지 않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장자권 탈취를 눈감아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마태복음 11:12]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두번째로,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충고에 따라 장자로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비록 속임수를 사용하였으나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쌍둥이 임신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고 미리 알려주신 계시에 충실하게 야곱을 도와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들이 이삭의 축복을 받도록 지혜롭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세번째로, 야곱은 아직 하나님을 알고 섬기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아내를 취하라는 부모의 뜻에 따라 이를 순종으로 실행하였습니다. 야곱의 어머니 레베카는 라반과 더불어 아브라함의 형 하란의 아들인 브두엘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하란은 아버지 테라와 달리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두 형제는 사악한 니므롯 왕에 의하여 옥에 갇혔었고, 함께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하란은 그 용광로 안에서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시련을 가진 가족은 아직 할아버지 하란의 믿음이 연약하나마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며, 이삭과 레베카는 그런 점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의 처자를 배우자로 삼도록 지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그를 섬기면서 20년을 지내면서 11명의 아들들을 얻었고,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으로 커다란 한 때를 이루었습니다. 매우 어려운 세월이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야곱은 대가족을 일구고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었으며, 이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수고하는 기간을 통하여 영과 육이 함께 성장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넷째로, 야곱은 자신과 한 배에서 한 때에 태어나서 자신이 장자권을 취하여 당연히 장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브니엘에서 천사와 싸우면서 온전히 깨지고 겸손하게 되어 나쁜 동기를 가진 형 앞에서 몸을 구부리고 겸손히 행함으로써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야곱의 이 겸손한 행위는 하나님의 마음에 큰 기쁨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 3. 우리의 선택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형제간의 경쟁적 관계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훨씬 더 나아가서,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에 무엇을 보고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여 그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하는가에 관한 매우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태도와 목적과 동기로 살고 있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대비하면서, 나의 인간성을 대변하는 에서를 보고, 내 안에 거하는 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번민하고 굴복하는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현자처럼 현명하게 선택하면서 주님의 마음에 커다란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